

리대사님 문장을 읽은 독후감

파룬궁 창시자 발표

《왜 인류가 존재하게 되었는가》

[밍후이왕] 파룬궁 창시자 리홍쯔 (李洪志) 사부님께서는 1월 20일에 《왜 인류가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발표하여 최초로 우주와 인류 사이의 진상을 게시하셨다. 글은 이미 여러종 언어로 번역돼 사회 각계의 강렬한 주목을 받았다.

■ 리대사님처럼 우주를 똑똑히 설명한 자는 없었습니다

뉴욕 국제그룹 창시자 러우신 웨 (樓新跃)는 북경대학 철학계 졸업생이자 <성경>에 대해 깊게 연구했던 학자이다. 그는 말했다. “내가 보기엔 이는 인류 사상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인류에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지요,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신화를 알잖아요, 또 많은 사람들도 불교의 경서를 읽었죠.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모든 경전 이든 역사의 문서든 종래로 리홍쯔 대사님처럼 이토록 정확하게 우주의 형성부터 인류의 기원 등을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적어도 나의 경험으로는 나에게 이토록 명확하고 확실하게 이 세계를 그려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글은 나더러 이 세계를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는 말했다. “앞으로 좋은 사람이 되어 좋은 일을 견지해야겠다는 신념이 더욱 확고해 졌습

니다.”

■ 이 세계를 다시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인류의 기원이라는 개념, 또는 창세주, 그리고 신, 사람과 신 사이의 관계를 완전하게 듣고, 보고 한 것은 처음입니다.” 전 상해대학 교수 구귀핑 (顾国平)은 리대사님께서 발표한 글을 읽은 후 “리대사님께서 한 말씀이 아주 사리가 밝고 확실합니다.”

중국 대륙의 역병 상황이 창궐할 시기에 마침 리대사님께서 문장을 발표하셨다. 당시 중국에서 적지않은 중공관원, 경찰, 각계 유명인, 학자, 전문가, 교수 등등을 포함해서 대량적으로 숨졌다. 구귀핑은 말했다. “시기가 매우 적절했으며 인류에게 어떻게 해야할지, 어떻게 이 세계를 다시 인지해야 할지에 대해 일깨워 주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매우 필요했고, 적절하며, 적합했습니다.”

■ 세인을 경시하여 더 많은 중생을 구도해

캐나다에 거주중인 유명 중의 자오중위안 (赵中元)은 불교신도다. 북경 중의계에서 꽤나 유명하다. 그는 리대사님의 글은 천기를 게시하는 것이므로 세인을 경시하여 더 많은 세인을 구도하기 위함이라고 표시했다.

자오중위안은 전에는 리대사님의 저작을 읽어본적은 없었으나 《왜 인류가 존재하게 되었는가》가 발표하면서 연속으로 2번을 읽었다고 표시했다. 그는 말했다. “당시에 눈이 번쩍하면서 정말 새롭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리대사님께서 30년간 법을 전수하면서 다만 자신의 제자에게만 설법했지 세인 상대로 설법하진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말했다. “리대사님께서 친히 대중 상대로 설법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 일까요? 아마도 인간 세상은 진정으로 매우 위험한 경계에 이르렀다는 뜻이 아닐까요?”

“자고로 능력이 뛰어난 선현 (先贤)들은 늘 어떤 예언을 남기질 않았나요? 당조시기 위안텐즈 (袁天罡), 리춘핑 (李淳风) 처럼 그들도 예언을 남겼잖아요. 그들은 (어떤 것) 보았기에 세인을 경시하고자 했던 거잖아요. 그러나 믿는 지 아닌지는 본인한테 달렸습니다.”

청년 수련자, '국제종교자유 정상회의'서 파룬궁 진상 알려



▲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한 청년 파룬궁 수련자 단체 사진.

[명후이왕] 지난 1 월 31 일부터 2 월 1 일까지 미국 수도 워싱턴 DC 에서 개최된 2023 년 '국제종교자유 정상회의 (IRF)' 에 청년 수련자들이 참가해 파룬궁 진상을 알렸다.

캘리포니아, 뉴욕, 메릴랜드에서 온 젊은 파룬궁 수련자들은 음악, 보건, 기술, 소프트웨어 개발 및 생명 기술 공학 분야의 학생과 젊은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들간의 회의에서 수련자들은 '파룬궁 단체를 지지하는 학생 (SFFG)' 과 '파룬궁 정보센터 (FDI)' 를 대표해 중국공산당 (중공) 이 파룬궁을 박해한 사실을 참석자와 정부 관리에게 설명했다. 여러 정상회의의 대변인과 인권 전문가는 파룬궁 수련자의 강인함과 용기에 찬사를 보냈고 중공의 지속적인 박해를 규탄했다.

■ 젊은 수련자, '종교 양심수 석방' 그룹 토론회서 발언

중국에서 태어나 현재 미국에 재학 중인 그레이스 첸은 파룬궁 수련자를 대표해 '중국 종교 양심수 석방 운동' 이라는 그룹 토론회에 참여했다. 그레이스의 부모는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중국에 수감돼 있다.

그룹 토론회에서 그레이스는 중국에서 파룬궁 수련자로서 생활한 경험을 공유했다. 1999 년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이후 수많은 파룬궁 수련자가 수감돼 고문에 시달렸고, 그레이스의 어린 시절에 부모는 여러 차례 수감됐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레이스를 유치원에 데려다주던 중 길가에서 경찰에게 납치돼 몇 주 동안 집에 돌아오지 못했다. 그레이스는 중공이 어떻게 파룬궁에 대한 거짓말을 중국 곳곳에 퍼뜨리고, 심지어 반 (反) 파룬궁 내용을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었으며, 전교생 앞에서 파룬궁을 비방하는 발

언을 하도록 교장과 교사를 주선했는지도 전했다.

2019 년 그레이스는 중국을 떠나 뉴욕으로 음악 공부를 하러 갈 수 있었지만 부모는 그녀를 공부시키기 위해 중국에 남아 일을 했다. 2020 년 말, 그레이스의 부모는 대규모 파룬궁 수련자 납치 작전으로 수감됐다. 이후 그레이스는 연락이 닿지 않아 2 년 넘게 부모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룹 토론과 질의응답이 끝난 뒤 한 관객은 다시 마이크를 잡겠다고 요청하며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과 그레이스의 용기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레이스의 이야기에 감동해 눈물을 흘린 그녀는 중공 정권이 17 세 소녀에게 한 짓은 비인간적이라고 지적했으며, 그레이스가 중공과의 항쟁에서 계속 굳건하라고 격려했다.



▲ IRF 정상회의 그룹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그레이스 첸 (맨 오른쪽)



▲ 어린 시절 어머니 차오즈민 씨와 함께 찍은 사진.

■ 회의 대변인과 정상 회담 지도자, 파룬궁 인정·지지

회의 내내 일부 회의 대변인은 파룬궁의 박해를 언급하며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한 그룹 회의에서, 어머니가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박해받아 사망한 시몬 장 (張) 은 1999 년 박해가 시작된 이후 어머니 [지원즈 (季雲芝)] 가 노동교양소에 두 차례 강제로 수감됐다고 말했다.

시몬은 "어머니의 65 년 생애, 마지막 23 년 동안은 중공의 감시, 소란, 체포, 고문, 학대를 당했는데... 어머니가 한 모든 것은 파룬궁의 원칙 진선인 (真·善·忍) 을 견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는 공산당 정권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더라도 이러한 원칙을 포기하길 거부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2022 년 북

◀ 2 면의 계속

경 (겨울) 올림픽 개막을 며칠 앞두고 지원즈 씨는 다시 붙잡혀 구치소에서 잔혹하게 고문당해 숨졌다 .

시몬의 사연을 들은 뒤 전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위원장인 카트리나 란토스 스웨트 IRF 공동위원장은 “수년간 나와 나의 가족, 란토스 가족, 란토스 재단은 줄곧 파룬궁 수련자와 교류해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이런 존엄과 대인지심 (大忍之心) 의 뛰어난 표현,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공포에 직면했을 때 뛰어난 관용 능력을 목격했습니다”라고 말했다 .



◀ 시몬 장이 파룬궁 수련으로 중공에 박해받아 숨진 어머니 지원즈씨의 사진을 들고 있다.

■ 회의 참석자, 파룬궁 부스 앞에서 지지 표명

‘SFFG’과 ‘FDI’는 IRF 전시장에 공동 부스를 설치하고 파룬궁 수련에 관한 자료와 중공의 파룬궁 박해 상황을 공박해 상황을 전시했다 . 많은 사람이 발걸음을 멈추고 진상을 안 후 파룬궁 수련자를 지지하며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문의했다 .

프로농구 선수이자 인권운동가인 에네스 칸터 프리덤은 중국의 인권침해와 생체 장기적출 범행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 그는 전시장에서 파룬궁 부스를 보고 발걸음을 멈췄다 .

에네스는 “파룬궁, 여러분 모두를 위해 기도한다”고 말했다 . 부스에 있던 수련자가 ‘파룬따파하오 (法輪大法好)’와 ‘진선인 (真·善·忍)’이라고 적힌 작은 연꽃 펜던트를 주자, 에네스는 감사의 뜻을 전하며 파룬궁 수련자가 평화적인 반 (反) 박해 항의가 성공하길 기원했다 .

나는 직접 ‘9 자진언’의 위력을 목격했다

[밍후이왕] 저는 캐나다 퀘벡의 파룬궁수련생입니다 . 최근 중국의 전염병 대유행으로 가족 두 명이 잇따라 감염됐고, “파룬따파하오 (法輪大法好 -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찐싼런하오 (真善忍好 - 진선인은 좋습니다)” 9 자진언 (九字真言) 을 성심껏 읽은 뒤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 이 과정에서 저는 직접 ‘구자진언’의 위력을 목격했습니다 .

2022 년 12 월 15 일 , 사천성에 계시는 86 세의 아버지께서 열이 38.5~39.2 도까지 오르내린다고 하셨습니다 . 저는 별로 심각하지 않은 줄 알았는데 영상통화를 하면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 담요를 덮고 소파에 누워 계시는 아버지는 두 눈을 멍하니, 입을 벌리고 숨을 헐떡였는데 매우 허약해 보였습니다 . 매우 짧고 가쁜 호흡을 하시는 모습은 내가 아는 아버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 언니의 말에 따르면 지역 병원에 전화를 걸었는데 병원에서는 해열제가 없으니 물리적으로 식힐 방법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

저는 서둘러 아버지에게 9 자진언을 읽으시라고 권하면서 감염 후 9 자진언을 읽고 빠르게 회복한 두 가지 사례를 들려주었습니다 . 평소 내가 아버지께 9 자진언을 자주 읽으라고 권하면 아버지는 늘 웃으며 얼버무리고 잘 믿지 않으셨습니다 . 뜻밖에 이번에는 아버지가 단호히 “내가 읽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이어 “파룬따파하오,

찐싼런하오”를 외쳤습니다 . (사실은 8 글자만 읽고 뒷글자 하나는 잊으셨음) 그런 후 말할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

전화를 놓은 후 밤새 저는 아버지를 걱정했고 새벽이 되자 또 서둘러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보기에선 여전히 허약해 보였고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완전히 변해 눈동자가 까맣고 특히 정신이 나 보였습니다 . 어젯밤 정신을 잃던 모습과는 전혀 달라 안색이 평온하고 숨도 고르게 쉬고 있었습니다 .

아버지가 9 자진언을 읽을 때는 밤 9 시쯤이었습니다 . 다음날 낮에 그는 이미 일어나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셨습니다 . 영상속에서 그는 원기 왕성했고 저를 보자마자 “이번에 난 큰 겁 난을 지났구나 . 9 자진언을 계속 읽을게 !”라며 기뻐했습니다 .



인명을 초개처럼 여기는 중공 감옥, 좋은 사람 살해해 입 막아

밍후이왕 불안정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월까지 15명 파룬궁 수련자가 중공박해로 숨졌다. 117명 파룬궁 수련자가 불법 노동교양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중 80_90세 2명, 70_80세 14명, 60_70세 19명으로 집계됐다. 중공은 파룬궁 수련자의 개인 자금 64 만원을 강탈했으며, 그중 법정에서 불법으로 내린 벌금은 42 만원 이고, 경찰들이 집수색으로 강탈해간 금액은 22 만원이다.

[밍후이왕] 광적인 중공(중국공산당)의 파룬궁 박해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괴롭힘을 당하며 죽어갔는가. ‘진선인(真·善·忍)’에 대한 믿음을 견지하고 진실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선량한 수련자들이 납치돼 경찰의 지시를 받은 살인범, 강간범, 마약범 등 재소자들로부터 고문과 구타, 괴롭힘을 당했는가.

수많은 수련자가 투옥된지 얼마 되지 않아 고문 박해로 사망했고, 아직도 많은 수련자가 장기간 감금돼 살해되고 있다. 긴 세월 동안 석방만을 기다리던 가족들은 싸늘한 시신으로 변한 수련자의 모습을 보고 오열하고 있다.

■ 라이즈창 출소 전 지동 감옥에서 사망

라이즈창(賴志强, 50대)은 하북성 당산(唐山)시 파룬궁 수련자다. 7년 가까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며 만기 출소 2개월을 남겨 놓고 사망했다. 출소만 손꼽아 기다리던 가족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다. 2023년 1월 3일 오전, 아내는 지동(冀東) 감옥으로부터 남편이 이미 사망했다는 통지를 받았다.

비보를 들은 가족이 황급히 감옥에 도착하자 감옥 측은 1000원을 요구했고 다음 날 시신을

볼 수 있었다. 관에 담겨진 시신은 1m도 채 안됐는데, 얼굴이 심하게 변형돼 알아볼 수 없었다. 감옥경찰 4~5명이 관을 지키며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다가가려는 아내까지 잡아채 수의도 갈아입히지 못하게 했다. 감옥 측은 사망자의 딸을 속여 서명하게 한 후 재빨리 시신을 화장했다.

라이즈창은 성실한 운전기사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던 선량한 사람이었다. 그는 2016년 3월 31일 한 수련자 집을 방문하러 갔다가 잠복 경찰에게 납치돼 불법적인 재판에서 7년 형을 선고받았다. 노모는 충격으로 세상을 떠났다.

■ 쑤윈샤, 감옥 출소 2일 전 흑룡강 여자 감옥서 사망

쑤윈샤(蘇雲霞, 여, 67)는 흑룡강성 할빈시 다오와이(道外)구 수련자다. 불법적인 재판에서 5년 형을 선고받고 감금돼 2021년 9월 6일 출소 예정이었으나 출소 이틀 전 갑자기 사망했다.

소식에 따르면 그해 9월 4일 쑤윈샤가 제 8 감구(監區)에서 재소자에게 심하게 구타를 당하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다. 불법 감금된 수련자는 반드시 출소 전 믿음을 포기한



불법감금

다는 이른바 ‘삼서(三書)’에 서명시킨다. 그러므로 서명을 거부하는 수련자에게 혹독한 구타와 고문을 가하는 것이다.

■ 판쉬전 출소 10일 전 사망

판쉬전(潘緒軍)은 강소성 서주(徐州)시 페이(沛)현 교사 수련자다. 2015년 5월 페이현 공안국 도시 파출소에 납치돼 5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홍저후(洪澤湖) 감옥에 감금돼 박해당하다가, 만기 출소 10일 전인 2020년 11월 8일 고문 박해로 사망했다.

홍저후 감옥 관계자의 은밀한 제보에 의하면, 판쉬전은 출소 전 혹독한 구타로 사망했다고 한다. 바오자(包夾: 파룬궁수련자 감시 책임 맡은 재소자) 리원화(李文華)가 감옥경찰의 지시로 판쉬전을 출소 전 ‘전향(수련 포기)’시키려 했다. 매일 두 시간밖에 잠을 안재우고 작은 의자에 앉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고문을 가했고, 졸고 움직이면 냉수를 퍼부으며 구타했는데, 그는 판쉬전의 태양혈 부위를 강타해 결국 살해했다.